JBLI **LETB** 2021.12. | **No.9**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JBLI Jeonbuk Labor Economic Trends Briefing

김 연 탁 (전북노동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본 브리핑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전북노동정책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JBLI 전북노동정책연구원
Jeonbuk Labor Policy Institute

JBLI LETB **2021.12. | No.9**
JBLI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발행일 | 2021. 12. 1.
발행인 | 염경석
발행처 |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설 전북노동정책연구원
주 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57 3층
전 화 | 063.256.5003
이메일 | kctu.jbli@gmail.com
ISSN | 2765 - 5490

JBLI LETB 2021.12. | No.9
전북 노동·경제 동향 브리핑

JBLI

목차

1. 전북지역 고용·노동현황(10월) 4

2. 고용 분석 5
1) 요약 5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6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 8

4. 산업 경기 현황 11
1) 제조업 11
2) 비제조업 14
3) 수출입통계 18

5. 가계동향 20
1) 소비자심리지수(CCSI) 20
2) 소비자동향지수(CSI) 21

6. 현황 및 대안 22
1) 보고서 요약 22
2) 이후의 대안 23

1. 전북지역 고용·노동 현황 (10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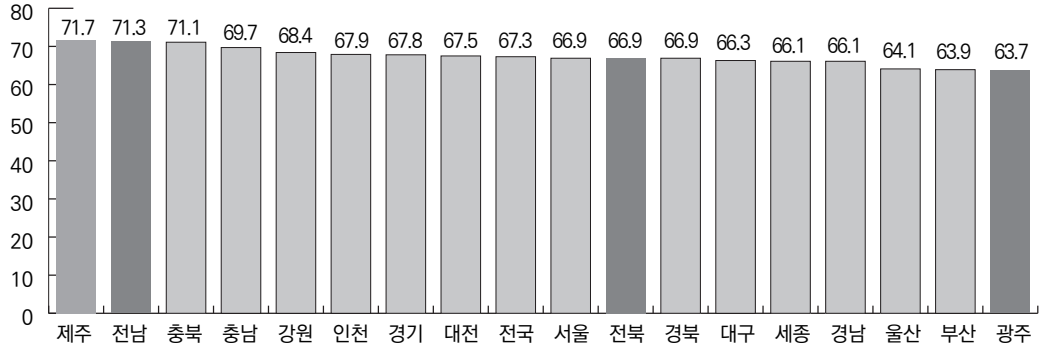
〈 취업자 현황 〉

(단위 : 천명)

		10월 현황 / 전년 동월 대비 증감				9월 현황 / 전월 대비 증감			
		전 국		전 북		전 국		전 북	
전 체		27,741	▲652	972	▲16	27,683	▲ 58	970	▲ 2
성별	남성	15,730	▲274	544	▲11	15,697	▲ 33	543	▲ 1
	여성	12,011	▲378	428	▲ 5	11,986	▲ 25	427	▲ 1
연령별	15~29세	3,927	▲180	114	▲16	3,951	▼ 24	109	▲ 5
	30대	5,252	▼ 24	135	▼18	5,248	▲ 4	137	▼ 2
	40대	6,327	▲ 20	206	▲ 2	6,327	-	206	-
	50대	6,511	▲124	226	▼ 1	6,485	▲ 26	224	▲ 2
	60세 이상	5,723	▲352	292	▲17	5,672	▲ 51	294	▼ 2
산업별	농림어업	1,594	▲ 20	174	▼14	1,572	▲ 22	174	-
	제조업	4,324	▼ 13	123	▲ 8	4,299	▲ 25	120	▲ 3
	건설업	2,127	▲ 52	73	▼ 4	2,133	▼ 6	74	▼ 1
	도소매음식숙박업	5,427	▼ 92	178	▲28	5,431	▼ 4	179	▼ 1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0,830	▲402	346	▲ 1	10,825	▲ 5	346	-
	전기운수통신금융업	3,428	▲282	78	▼ 3	3,414	▲ 14	78	-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5,568	▲ 18	266	▲ 5	5,528	▼ 40	264	▲ 2
	무급가족종사자	1,061	▼ 37	75	▼11	1,045	▲ 16	76	▼ 1
	상용근로자	15,062	▲615	438	▲23	15,001	▲ 61	432	▲ 6
	임시근로자	4,843	▲219	156	▲11	4,893	▼ 50	158	▼ 2
	일용근로자	1,207	▼162	38	▼10	1,216	▼ 9	41	▼ 3

〈 시도별 15~64세 고용률 〉

(9월 기준, 높은순, %)



2. 고용 분석

1) 요약

- 10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는 1,556천 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천 명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증감이 미미함. 2017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임. 경제활동인구는 98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 증가하였고, 전월대비 3천 명 증가함, 비경제활동인구는 5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감소, 전월대비 2천 명 감소함.
- 10월 기준 전북지역의 취업자는 9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천 명 증가, 전월대비 2천 명 증가하였음. 실업자는 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이 감소하고, 전월대비 1천명 증가함. 고용률[1]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9%p 상승, 전월대비 0.1%p 상승하였음. 실업률[2]은 1.5%로 전년동월대비 0.7%p 낮아지고, 전월대비 0.1%p 높아짐.
- 10월 기준 전북지역의 15~64세 고용률(OECD 기준)은 66.9%로 전국평균(67.3%)에 미달함.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하였으며, 전월대비 0.3%p 상승함. 2020년 12월 전국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이후,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전국평균을 상회하였지만, 4월부터 전국평균에 미달함. 농업과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 취업자 수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전북지역의 고용현황을 감안할 때, 그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됨.
- 2021년 3/4분기 기준 전북지역의 청년고용률(15~29세)은 37.4%로 전년동분기대비 5.1%p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2.2%p 상승함. 이 수치는 전국평균(45.3%)뿐 아니라, 전남(38.8%,)과 제주(41.5%)에 미치지 못함.
- 10월 기준 전년동월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여 모두 증가, 연령별로는 15~29세 및 60세 이상 증가, 30대가 큰 폭으로 감소함.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도소매음식숙박업이 큰 폭으로 증가함. 종사상 지위별로는 무급가족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하고 증가함. 특히 상용, 임시노동자가 많이 증가함.
- 10월 기준, 전월대비 전북지역 고용현황은 성별로는 남, 여 모두 소폭증가, 연령별로는 30대와 60세 이상이 감소하고 29세 이하와 50대는 증가함.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증가

1)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100
2)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했으며,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이 각각 1천명 감소함. 종사상 지위에서는 자영업자와 상용노동자는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 임시·일용 노동자는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고용 증가는 남성,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한 데 주된 원인이 있음. 이는 29세 이하의 서비스업종 취업자 증가와 60세 이상의 자영업 창업과 공공기관 노인일자리 취업의 증가로 보임.
- 전월대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월 보고서에서도 언급했듯이 3-40대의 취업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전국의 추세와는 다르게 자영업자가 증가했음.

2) 분류별 취업자 동향

(1) 성별 동향

- 전년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취업자 수는 652천 명 증가함. 남성(274천 명)과 여성(378천 명) 모두 증가함. 전북지역은 16천 명 증가함, 남성은 11천 명, 여성은 5천 명 각각 증가함. 전월과 비교하면, 전국적으로 58천 명 증가함. 남성은 33천 명, 여성은 25천 명 증가함. 전북지역은 2천 명(남, 여 각각 1천명 증가) 증가함.
- 전북지역 성별 고용율[3]은 전년동월대비 남성은 71.1%로 1.2%p 상승함, 여성은 54.2%로 0.7%p 상승했음. 전월과 비교하면, 남 0.1%p, 여성은 0.2%p 각각 상승함.

(2) 연령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전국적으로 30대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지역의 경우에도 30대와 50대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특히, 30대의 경우 18천 명이 감소하였음(전국적으로 24천 명 감소). 전국과 지역 모두 29세 이하와 60세 이상 취업자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 전월 대비 전국 통계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29세 이하에서 감소하였으나, 지역의 경우에는 29세 이하와 50대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하였고, 30대와 60세 이상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음.

3) 15세 이상 성별인구 대비 취업자 비중

⑶ 산업별 동향

- 전년동월대비 전국적으로는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 건설업, 농림어업이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92천 명)과 제조업(-13천 명)이 감소하였음.
- 전년 동월대비 전북지역은 농림어업(-14천 명)과 건설업(-4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업(-3천 명)이 감소한 반면, 도소매음식숙박업(+28천 명)과 제조업(+8천 명)이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전국 현황은 도소매음식숙박업(9월 86천 명에 이어 10월에도 4천 명 감소), 건설업(9월 16천 명에 이어 10월에도 6천 명 감소)이 감소한 반면, 제조업(9월 1만명에 이어, 10월 25천 명 증가), 전기운수통신금융업(9월 54천 명에 이어 10월 14천명 증가함),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9월 72천 명에 이어 10월 5천 명 증가함), 농림어업(+22천 명)이 증가했음. 전북지역은 제조업(9월 5천 명에 이어 10월 3천 명 증가)만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뿐 증감이 미미함.

⑷ 종사상 지위별 동향

- 전년동월 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가 18천 명 증가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가 37천 명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자영업자가 5천 명 증가하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1천 명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 전국적으로 자영업자는 40천 명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6천 명 증가함.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2천 명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천 명 감소함.
- 2021년 10월 기준, 전국적으로 전체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자 비중은 20.07%로 전월대비 0.11%p 증가함, 무급가족종사자는 3.82%로 전월대비 0.05%p 증가함. 전북지역은 자영업자 27.37%(전월대비 0.16%p 증가), 무급가족종사자는 7.72%(전월대비 0.11%p 감소)를 차지하고 있음. 전북지역이 전국 대비 자영업종사자 비율이 7.30%p, 무급가족종사자는 3.90%p 더 높음. 전북지역의 자영업 종사자(무급포함) 비율은 35.09%를 차지하고 있음. 이 수치는 미국(15%)에 비해 약 2~3배, 유럽(7~10%)에 비해 3.5~5배가 많은 수치임.
- 많은 자영업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또는 퇴출)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을 창업하거나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직종(플랫폼 등)에 취업한다는 점

을 감안할 때, 자영업 종사자가 많은 현실은 전북지역의 고용구조가 열악하다는 것을 반증함. 또한, 자영업의 영세성과 열악한 근로조건과 수입규모(2019년 기준 연 1,300만원으로 전국 최저)를 감안할 때, 경제적 약자로서의 사회적 지원과 구조적인 해결이 요구됨. 중장기적으로 공공부문 고용정책(농업 및 공익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 임금노동자로 수용하는 것이 대안일 수 있음.

- 뿐만 아니라, 코로나 위기의 지속으로 인해 직접적인 생계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사회적 지원이 요구됨.
- 전년동월대비 임금노동자 현황은 전국적으로 상용노동자가 615천 명, 임시노동자 219천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노동자는 162천 명이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의 경우는 상용 23천명, 임시 11천 명이 증가한 반면, 일용직 노동자가 10천 명 감소하였음. 전월과 비교했을 때, 전국적으로 상용 61천 명이 증가한 반면, 임시노동자 50천 명, 일용노동자는 9천명이 각각 감소하였음. 전북지역은 상용 6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 2천 명, 일용 3천 명이 각각 감소함.

3. 임금노동자 고용형태별 현황[4)]

(단위 : 천명, %)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전국	전체	18,195	18,743	19,230	19,546	19,806	20,083	20,440	20,332
	상용	11,713	12,156	12,588	12,974	13,334	13,772	14,216	14,521
		64.3	64.8	65.3	66.4	67.3	68.6	69.5	71.4
	임시	4,892	5,032	5,086	5,104	4,973	4,851	4,795	4,483
		26.9	26.8	26.4	26.1	25.1	24.2	23.5	22.1
	일용	1,590	1,555	1,556	1,469	1,499	1,460	1,429	1,328
		9.1	8.4	8.3	7.5	7.6	7.2	7.0	6.5
전북	전체	565	571	576	575	577	605	609	603
	상용	347	350	346	366	368	386	400	412
		61.4	61.3	60.0	63.6	63.8	63.8	65.7	68.3
	임시	150	156	162	154	157	155	149	141
		26.5	27.3	28.1	26.8	27.2	25.6	24.5	23.4
	일용	68	65	67	54	52	64	63	50
		12.1	11.4	11.9	9.6	9.0	10.6	9.8	8.3

4) 임시직과 일용직에 대해 사전적으로 정리하면, '임시직'은 일정기간동안 고용을 약정하는 직종을 뜻하며, '일용직'은 하루에 책정된 일정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직종임.

- 전국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305천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노동자가 312천 명, 일용노동자가 108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이며, 임시노동자는 2016년 5,104천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추세임. 일용노동자 역시 2017년 이후 감소추세임. 임시노동자가 감소 추세라고는 하나, 아직도 상시업무에 임시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청년노동자들의 신규 채용시 임시직으로 채용하고,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 또는 계약해지하는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함.
- 지역추계 2020년 임금노동자 규모는 2019년 대비 9천 명 감소하였음. 상용노동자는 12천 명 증가한 반면, 임시직 노동자는 8천 명, 일용직 노동자는 13천 명 감소하였음.

(단위 : 천명)

구 분		2020			2021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국	전체	20,441	20,678	20,174	19,617	20,078	20,511	20,647	20,888	20,977	21,012	20,992	21,110	21,112
	상용	14,448	14,528	14,580	14,622	14,678	14,769	14,712	14,819	14,830	14,888	14,893	15,001	15,062
		70.7	**70.3**	**72.3**	**74.5**	**73.1**	**72.0**	**71.3**	**70.9**	**70.7**	**70.9**	**71.0**	**71.0**	**71.3**
	임시	4,624	4,738	4,355	3,860	4,190	4,490	4,667	4,760	4,866	4,875	4,851	4,893	4,843
		22.6	22.9	21.6	19.7	20.9	21.9	22.6	22.8	23.2	23.2	23.1	23.2	22.9
	일용	1,369	1,412	1,239	1,135	1,210	1,252	1,268	1,309	1,281	1,249	1,248	1,216	1,207
		6.7	6.8	6.1	5.8	6.0	6.1	6.1	6.3	6.1	5.9	5.9	5.8	5.8
전북	전체	608	629	600	579	612	622	617	623	636	636	635	631	632
	상용	415	421	423	424	427	433	427	430	434	437	432	432	438
		68.3	**66.9**	**70.5**	**73.2**	**69.8**	**69.6**	**69.2**	**69.0**	**68.2**	**68.7**	**68.0**	**68.5**	**69.3**
	임시	145	158	134	112	146	146	147	149	158	158	159	158	156
		23.8	25.1	22.3	19.3	23.9	23.5	23.8	23.9	24.8	24.8	25.0	25.0	24.7
	일용	48	50	43	43	39	43	43	44	44	41	44	41	38
		7.9	7.9	7.2	7.5	6.3	6.9	7.0	7.1	7.0	6.5	7.0	6.5	6.0

- 전체 취업자대비 임금노동자 비중은 전국 76.1%, 전북지역 65.0%로 11.1%p 낮음.
- 전북지역 상용노동자 비중은 전국평균에 비해 1.3-5.3%p 낮음. 2021년 10월을 기준으로 2.0%p 낮음. 8월 이후 상용노동자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신규채용보다는 임시 및 일용노동자의 감소 영향이 큼.
- 전국적으로 12월과 1월 임시직 노동자의 수가 급감하다가 2월 급증하는 수치는 10개월 (꼼수)계약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줌. 전반적으로 전북지역의 임시노동자 비중은 전국 수준을 상회함. 2021년 10월기준, 24.7%로 전국 평균보다 1.8%p 더 높음.

- 일용노동자 비중을 보면, 2021년 10월 기준 전국 평균에 비해 0.2%p 더 높음.
- 전반적으로 전북지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는 전국에 비해 정규직 비율이 낮고,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율이 높음. 이는 고용이 불안정하며, 임금을 포함한 노동조건도 열악하다는 것을 나타냄.
- 아래 〈보론〉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에서 보듯이 전반적인 지수는 2021년 3월을 기점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8월에 이어 10월 지수가 급격히 악화되었음. 전월 대비 취업자수는 2천 명 증가하였는데,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138천 명 증가하고 36시간 이상 노동자가 136천 명이 감소하였음. 도식적으로 해석하면, 기존 36시간 이상 노동자 중 136천 명이 노동시간이 36시간 미만으로 줄었고, 신규 채용된 2천 명이 36시간 미만 노동자라는 해석이 가능함. 10월 4일과 10월 11일 대체휴일을 유급으로 적용받지 못한 노동자가 많은 것도 원인의 일부로 보임.

〈보론〉 전북 지역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시간, %)

구 분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전 체	907	904	907	913	931	944	946	943	951	956	966	917	**932.1**
36시간 미만	253	240	217	300	213	210	240	249	223	217	257	252	**239.2**
36시간 이상	633	627	638	571	699	719	694	679	715	726	698	652	**670.9**
일시 휴직	21	38	52	42	19	15	13	14	13	14	11	13	**22.0**
주당평균 취업시간	37.5	36.9	37.3	36.9	39.1	39.7	38.8	38.5	39.1	39.7	38.5	37.6	**38.3**

구 분	2021										전월대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증감률
전 체	893	928	947	948	961	977	971	969	970	972	**+2**
36시간 미만	255	275	255	217	224	232	246	354	236	374	**+138**
36시간 이상	625	638	684	724	730	741	716	607	728	592	**−136**
일시 휴직	13	15	8	7	8	4	8	9	6	6	**0**
주당평균 취업시간	37.2	36.8	38.2	39.2	39.4	39.7	39.2	37.8	39.5	37.7	**1.8**

4. 산업 경기 현황

1) 제조업

(1)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11월)

- 2021년 11월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 BSI[5]는 89로 전월대비 2p 상승. 12월 업황전망 BSI는 87로 전월 대비 2p 하락, 전국의 경우 11월 실적(90)은 전월과 동일, 12월 전망(88)도 전월과 동일.

		2020											
	장기평균[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황[2]	74 (79)	63 (60)	57 (67)	58 (62)	51 (60)	52 (47)	45 (52)	43 (47)	51 (43)	57 (54)	63 (59)	69 (67)	66 (70)
〈전국〉	78 (81)	76 (73)	65 (77)	56 (69)	52 (54)	49 (90)	51 (49)	59 (51)	66 (61)	68 (68)	79 (68)	85 (76)	82 (81)

		2021											
	장기평균[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월대비
업황[2]	74 (79)	67 (66)	72 (67)	76 (78)	87 (79)	97 (86)	90 (87)	86 (88)	82 (80)	82 (83)	87 (90)	89 (89)	(87)	+2 (-2)
〈전국〉	78 (81)	85 (77)	82 (81)	89 (85)	96 (91)	96 (98)	98 (97)	97 (99)	95 (92)	90 (96)	90 (93)	90 (88)	(88)	-0 (-0)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좋음」응답업체 구성비(%)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11월중 실적은 108로 전월대비 12p 상승, 12월 전망(101)은 전월과 동일.
- 채산성 BSI: 11월중 실적은 80으로 전월대비 1p 하락, 12월 전망(82)은 전월대비 2p 하락.
- 자금사정 BSI: 11월중 실적은 84로 전월대비 4p 상승, 12월 전망(84)은 전월대비 3p 상승.

5) 기업경기실시지수(BSI): 기업가의 경기에 대한 판단, 전망등이 생산, 매출, 투자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설문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는 지수로서 0~200의 값을 가지며, 100보다 클 때는 긍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가 부정적 시각의 기업의 수보다 많다는 의미임.

구 분	2020				2021												전월 대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매 출[1]	65	69	72	78	81	87	95	111	114	108	106	102	101	96	**108**		+12
	(59)	(71)	(71)	(77)	(74)	(83)	(91)	(103)	(110)	(111)	(106)	(103)	(100)	(108)	**(101)**	**(101)**	(-0)
생 산[1]	72	77	75	84	82	85	99	106	109	107	102	104	101	98	**105**		+7
	(68)	(74)	(78)	(77)	(83)	(83)	(96)	(102)	(106)	(106)	(107)	(102)	(105)	(106)	**(106)**	**(102)**	(-4)
신규수주[1]	70	76	73	82	84	82	95	102	106	104	106	102	93	92	**101**		+9
	(68)	(71)	(78)	(75)	(81)	(87)	(91)	(101)	(103)	(105)	(102)	(103)	(103)	(101)	**(100)**	**(96)**	(-4)
가동률[3]	73	74	80	85	84	83	98	107	109	106	102	102	99	96	**102**		+6
	(68)	(76)	(77)	(82)	(84)	(85)	(93)	(103)	(107)	(108)	(104)	(101)	(105)	(103)	**(103)**	**(95)**	(-8)
채산성[5]	78	75	83	81	81	79	78	90	90	80	78	85	83	81	**80**		-1
	(80)	(80)	(78)	(83)	(82)	(82)	(83)	(80)	(91)	(89)	(82)	(79)	(87)	(83)	**(84)**	**(82)**	(-2)
원자재 구입가격[3]	117	115	117	121	134	140	148	149	150	153	143	145	143	149	**152**		+3
	(113)	(116)	(114)	(119)	(124)	(132)	(136)	(142)	(146)	(145)	(148)	(138)	(142)	(139)	**(145)**	**(149)**	(+4)
제품판매 가격[3]	94	93	100	98	101	101	108	112	112	114	115	111	108	110	**111**		+1
	(91)	(95)	(95)	(99)	(100)	(102)	(101)	(108)	(111)	(114)	(113)	(110)	(110)	(108)	**(108)**	**(109)**	(+1)
자금사정[5]	70	71	75	79	77	75	74	85	87	83	82	83	85	80	**84**		+4
	(68)	(70)	(73)	(77)	(75)	(79)	(78)	(78)	(87)	(86)	(83)	(83)	(83)	(84)	**(81)**	**(84)**	(+3)
제품재고 수준[2]	102	108	105	99	103	99	100	95	93	99	96	104	102	97	**95**		-2
	(109)	(102)	(106)	(106)	(100)	(101)	(98)	(99)	(95)	(98)	(100)	(96)	(102)	(101)	**(96)**	**(98)**	(+2)
생산설비 수준[2]	107	107	106	106	107	103	104	103	102	104	102	105	102	103	**102**		-1
	(109)	(108)	(107)	(105)	(107)	(107)	(105)	(105)	(103)	(101)	(105)	(102)	(104)	(102)	**(102)**	**(102)**	(-0)
설비투자 실행[4]	89	92	91	90	90	95	95	96	102	101	102	104	102	101	**100**		-1
	(89)	(92)	(92)	(92)	(91)	(91)	(95)	(96)	(94)	(104)	(101)	(103)	(104)	(103)	**(101)**	**(98)**	(-3)
인력사정[2]	100	98	98	94	99	94	89	89	78	79	83	80	81	78	**77**		-1
	(98)	(103)	(98)	(98)	(97)	(102)	(94)	**(93)**	(91)	(82)	**(83)**	(86)	(80)	(84)	**(78)**	**(79)**	(+1)

주 : 1) 「확대」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2)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3) 「상승」응답업체 구성비(%) - 「하락」응답업체 구성비(%) + 100
4) 「계획대비 수정증액」응답업체 구성비(%) - 「계획대비 수정감액」응답업체 구성비(%) + 100
5) 「호전」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
6) ( ) 내는 전월에 조사된 해당월 전망치

- 11월 중 전북지역 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30.5%), 내수부진(19.5%), 인력난·인건비 상승(16.2%)등이 상위를 차지함. 전월과 비교시 원자재가격 상승(22.4%→30.5%), 인력난·인건비 상승(15.2%→16.2%)등의 응답 비중은 상승, 불확실한 경제상황(13.9%→11.0%), 내수부진(20.8%→19.5%) 등의 응답 비중은 하락.

(2) 광공업[6] 생산 동향(10월)

- 10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4.8% 증가, 전월 대비 2.4% 감소함(출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 전월대비 1.3% 감소, 재고는 전년 동월 대비 19.8% 감소, 전월대비 2.8% 감소)
- 10월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은 화학제품, 금속가공, 음료 등에서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1차금속, 자동차 등이 증가함.

(2015=100,%/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p
지수	원계열	97.1	91.2	90.9	92.8	87.3	92.5	86.0	88.0	83.1	83.0	88.6	90.7	93.8	86.6
	계절조정계열	-	-	91.4	90.6	91.1	89.7	-	87.7	82.6	84.6	87.1	91.1	93.1	90.0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2.5	-6.1	-7.4	-6.4	-5.5	-5.8	-5.7	-3.2	-10.5	-4.9	-4.7	2.6	12.3	3.7
	전월(기)비	-	-	-4.3	0.0	0.1	-1.5	-	-2.2	-5.8	2.4	1.4	4.6	2.2	-3.3

구 분		2020					2021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지수	원계열	74.1	90.8	86.2	87.7	91.1	90.5	83.4	98.3	94.8	91.4	95.1	91.8	83.6	84.5	91.1
	계절조정계열	80.0	91.2	88.2	86.5	87.0	87.0	94.1	92.3	92.5	92.6	94.2	91.2	90.0	88.8	86.7
증감률	전년동월(기)비	-11.3	6.4	-8.5	-5.5	-0.8	2.5	1.6	3.8	6.6	14.5	16.3	8.8	12.1	-7.5	4.8
	전월(기)비	-3.0	14.0	-3.3	-1.6	0.6	0.0	8.2	-1.9	0.2	0.1	1.7	-3.2	-1.3	-1.3	-2.4

● 전년 동월 대비 주요 업종별 증감내역 (생산)

기계장비	43.3%	농업용트랙터, 금형, 열교환기
1차금속	17.2%	봉강, 동박, 강관
자동차	6.6%	대형트럭, 소형트럭, 특수목적용자동차
화학제품	-8.3%	엔지니어링플라스틱수지, 반도체용식각제, 폴리에스터섬유
금속가공	-20.0%	육상금속구조물, 건축용금속공작물, 나사제품
음료	-11.8%	맥주, 혼합음료, 주정

6) 산업분류에 따르면 대분류로 광공업이고 중분류로 하면, 광업(B)과 제조업(C)로 나뉜다. 실질적으로 광업에 의한 생산이 거의 없으므로, 제조업으로 봐도 무하다.

2) 비제조업

(1) 일반현황

- 11월 전북지역 비제조업 업황 BSI는 68로 전월 대비 5p 상승, 12월 업황전망 BSI는 63으로 전월대비 1p 하락. 전국의 경우 11월 실적(83)은 전월대비 1p 하락, 12월 전망(83)도 전월대비 2p 하락.

		2020				2021												전월 대비
	장기평균[1]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업황[2]	65 (70)	56 (56)	56 (58)	60 (56)	57 (59)	56 (54)	59 (59)	60 (66)	64 (59)	71 (66)	75 (71)	74 (75)	73 (74)	63 (72)	63 (62)	**68** **(64)**	**(63)**	**+5** **(−1)**
전국	74 (77)	62 (69)	69 (62)	73 (69)	68 (73)	70 (64)	72 (70)	77 (73)	82 (78)	81 (82)	81 (81)	79 (82)	81 (78)	79 (81)	84 (81)	**83** **(85)**	**(83)**	**−1** **(−2)**

주 : 1) 2003.1월 ~ 2020.12월까지 평균치이며, 매년 수정됨
2) BSI =「좋음」응답업체 구성비(%) −「나쁨」응답업체 구성비(%) + 100
3) ( ) 내는 전망 BSI

- 매출 BSI: 11월 중 실적은 81로 전월대비 7p 상승, 12월 전망(83)은 전월대비 9p 상승.
- 채산성 BSI: 11월 중 실적은 82로 전월 대비 5p 상승, 12월 전망(80)은 전월대비 4p 상승.
- 자금사정 BSI: 11월 중 실적은 77로 전월보다 2p 상승, 12월 전망(75)은 전월대비 1p 하락.

	2020									2021												전월 대비
월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매 출[1]	56 (56)	56 (57)	53 (55)	56 (53)	53 (57)	58 (55)	56 (57)	62 (56)	61 (60)	57 (58)	61 (60)	64 (66)	68 (67)	81 (72)	81 (80)	82 (82)	82 (82)	76 (80)	74 (75)	**81** **(74)**	**(83)**	**−7** **(+9)**
채 산 성[2]	61 (62)	70 (62)	65 (67)	66 (64)	59 (64)	63 (63)	63 (63)	72 (62)	66 (69)	63 (60)	69 (65)	71 (73)	74 (75)	82 (77)	79 (81)	83 (81)	84 (83)	75 (79)	77 (83)	**82** **(76)**	**(80)**	**+5** **(+4)**
자금사정[2]	55 (59)	65 (57)	61 (61)	66 (58)	57 (61)	61 (59)	65 (59)	69 (63)	65 (68)	64 (60)	68 (65)	72 (69)	71 (71)	85 (75)	77 (83)	82 (77)	78 (80)	68 (72)	75 (73)	**77** **(76)**	**(75)**	**+2** **(−1)**
인력사정[3]	89 (84)	84 (88)	83 (85)	83 (83)	81 (82)	84 (82)	84 (82)	85 (86)	87 (85)	81 (84)	82 (81)	78 (83)	79 (79)	83 (81)	78 (84)	82 (79)	82 (83)	80 (85)	80 (82)	**76** **(81)**	**(77)**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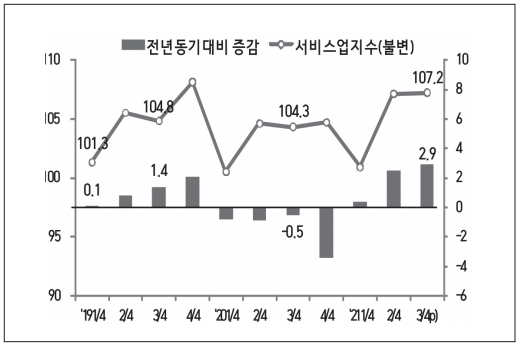
주 : 1) 「확대」 응답업체 구성비(%) − 「둔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년동월비)
2) 「호전」 응답업체 구성비(%) − 「악화」응답업체 구성비(%) + 100(전월비)
3) 현재 수준 「과잉」응답업체 구성비(%) − 「부족」응답업체 구성비(%) + 100으로,
일반적으로 경기 상승기에는 하락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상승하는 역계열임
4) ( )내는 전망BSI

- 11월 중 전북지역 비제조업체들이 느끼는 경영애로사항으로는 인력난·인건비 상승(19.1%), 내수부진(14.0%), 불확실한 경제상황(13.1%), 원자재가격 상승(10.8%) 등이 상위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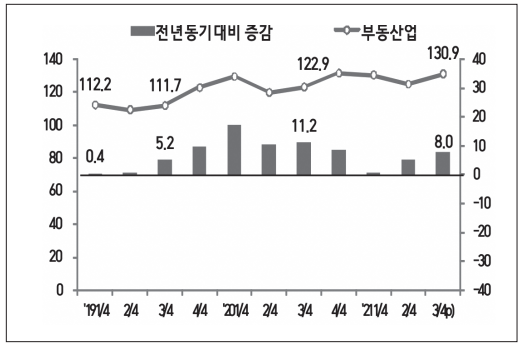
(2) 서비스업

- 2021년 3분기 전북지역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7.2(추정치)로 전년동분기대비 2.9p, 전분기 대비 0.2p 상승, 서비스업 중 부동산업(130.9-추정치)에서 가장 크게 상승(+8.0p)하였으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업'(103.8-추정치)에서 하락(-1.1p)

〈서비스업 생산지수(전년 동기 대비)〉



〈예술·스포츠·여가(전년 동기 대비)〉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분기)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10월)

- 10월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7]는 86.0으로 전년 동월대비 1.1% 증가함.
- 신발·가방, 화장품, 오락·취미·경기용품 등은 감소하였으나, 가전제품, 의복 등이 증가함.

(2015=100, %/ P: 추정치)

구 분	2018	2019					2020					2021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p)
원계열	93.0	86.3	89.5	82.5	88.1	85.2	82.8	79.7	79.7	86.5	85.2	84.4	82.5	87.7
전년동월(기)비	-3.6	-7.2	-5.8	-8.5	-8.1	-6.6	-4.1	-10.9	-3.4	-1.8	0.0	5.9	3.5	1.4

구 분	2020											
	1월	2월	3월	4월	5 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계열	100.4	65.0	73.7	76.1	84.1	78.4	79.7	84.5	95.2	85.1	83.1	87.5
전년동월(기)비	7.0	-23.2	-18.3	-2.4	-4.8	-3.4	-2.7	-0.7	-2.3	6.0	-3.9	-1.5

구 분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p)	10월(p)
원계열	87.5	87.5	78.2	79.9	89.6	78.0	87.9	80.2	94.9	86.0
전년동월(기)비	-12.8	34.6	6.1	4.3	6.5	-0.5	10.3	-5.1	-0.3	1.1

7) 대형소매점 판매액(불변)지수: 전국 16개 시도별 대형소매점의 월평균 판매액을 지수로 만든 것임. 100이 평균임.

⑶ 건설업

① 연도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연도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건설수주액		3,006,648	2,746,359	3,358,561	1,616,643	3,418,023	2,909,215	3,673,162	4,314,399	2,616,885	3,315,188
공종별	건축	1,730,185	1,949,981	1,514,818	950,232	2,157,153	2,114,379	1,902,504	1,802,489	1,860,511	2,309,107
	토목	1,276,463	796,378	1,843,743	666,411	1,260,870	794,836	1,770,658	2,511,910	756,374	1,006,081
발주자별	공공	1,269,293	1,071,735	854,889	598,788	1,462,663	1,026,814	1,560,865	2,266,867	1,137,655	1,075,547
	민간	1,688,229	1,626,911	2,464,688	903,057	1,899,537	1,805,097	2,097,077	2,016,806	1,474,160	2,202,182
	국내외국기관	7,887	9,819	19,893	16,861	4,683	5,352	9,167	1,890	920	471
	민자	41,239	37,894	19,091	97,937	51,140	71,952	6,053	28,836	4,150	36,988

- 2020년 건설수주액은 3조 3152억으로 2019년에 비해 약 6,983억이 증가함.
- 공종별에서는 2019년에 비해 건축이 4,486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이 2,497억이 증가함. 즉, 대규모 토목공사보다는 전체적으로 부동산개발이 건설업의 호황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음. 공공발주가 621억이 감소하였으나, 민간발주가 약 7,280억이 증가한 것에서도 나타남.

② 분기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액수

(분기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 분		2019				2020				2021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p)
건설수주액		442,525	657,767	222,679	1,328,755	760,947	443,969	446,232	1,667,327	457,644	950,405	976,370
공종별	건축	335,696	529,242	175,590	834,851	531,098	339,955	330,287	1,105,248	257,074	510,480	824,037
	토목	106,829	128,525	47,089	493,904	229,849	104,014	115,945	562,079	200,570	439,925	152,333
발주자별	공공	209,427	157,083	98,394	697,396	242,336	123,118	132,728	578,861	157,088	417,191	209,859
	민간	233,098	499,924	120,819	630,515	517,199	289,304	309,004	1,088,466	299,493	532,593	764,383
	국내외국기관	0	581	339	0	311	54	106	0	174	621	1,943
	민자	0	179	3,127	844	1,101	31,493	4,394	0	889	0	185

- 2021년 3분기 전북지역 건설수주(추정)액은 9,763억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약 5,301억이 증가함.

- 전년동분기 대비 공종별은 건축은 4,938억이 증가하였고, 토목은 364억이 증가함.
- 전년동분기 대비 발주자별 수주동향은 공공이 771억이 증가하였고, 민간은 4,553억이 증가하였음.

③ 월별 분석 요약

● 전북지역 건설수주 공종별·발주자별 총액

(2019-21년 월별, 단위: 백만원, p)추정치)

구분		2019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165,666	169,487	107,372	436,919	78,787	142,061	50,389	69,077	53,148	341,830	402,424	584,501
공종별	건축	126,455	141,956	67,285	426,123	48,164	54,955	42,927	45,594	36,945	318,586	259,826	256,439
	토목	39,211	27,531	40,087	10,796	30,623	87,106	7,462	23,483	16,203	23,244	142,598	328,062
발주자별	공공	39,529	155,535	14,363	23,515	34,546	99,022	7,271	25,417	15,980	40,690	216,407	440,299
	민간	126,137	13,952	93,009	412,823	44,241	42,860	41,441	42.210	37,168	300,296	186,017	144,202
	국내외국기관	0	0	0	581	0	0	0	0	0	0	0	0
	민자	0	0	0	0	0	179	1,677	1,450	0	844	0	0

구분		202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건설수주액		263,783	445,473	51,691	100,728	90,719	252,522	110,096	169,768	166,368	434,239	449,510	783,578
전년동월대비		98,117	275,986	-55,681	-336,191	11,932	110,461	59,707	100,691	113,220	92,409	47,086	199,077
공종별	건축	198,408	306,153	26,537	60,986	81,303	197,666	77,572	129,167	123,548	380,595	210,100	514,553
	토목	65,375	139,320	25,154	39,742	9,416	54,856	32,524	40,601	42,820	53,664	239,410	269,025
발주자별	공공	72,391	138,315	31,630	44,756	14,748	63,614	35,370	44,819	52,539	67,300	207,920	303,641
	민간	191,167	306,057	19,975	55,949	44,447	188,908	73,453	121,731	113,820	366,939	241,590	479,937
	국내외국기관	225	0	86	23	31	0	0	106	0	0	0	0
	민자	0	1,101	0	0	31,493	0	1,273	3,112	9	0	0	0

구분		2021											
		01	02	03	04	05	06	07	08	09(p)	10(p)	11	12
건설수주액		84,954	80,371	286,991	166,460	460,130	162,856	115,019	531,228	321,696	268,072		
전년동월대비		-178,829	-365,102	235,300	65,732	369,411	-89,666	4,923	361,460	155,328	-166,167		
공종별	건축	53,786	24,434	174,246	150,061	157,313	105,537	81,999	503,207	231,545	244,547		
	토목	31,168	55,937	112,745	16,399	302,817	57,319	33,020	28,021	90,151	23,525		
발주자별	공공	28,138	38,458	90,492	38,493	298,213	80,507	56,637	70,624	86,808	34,368		
	민간	56,816	41,774	196,325	127,346	161,917	82,349	57,830	460,419	234,478	233,493		
	국내외국기관	0	0	174	621	0	0	552	0	410	211		
	민자	0	169	0	0	0	0	0	185	0	0		

- 전년동월대비 건설수주액이 7월부터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10월 들어 감소하였음
- 공종별 10월 수주현황은 전년동월대비 건축은 1,360억이 감소하고, 토목은 301억이 감소하였음.
- 발주자별 10월 수주현황은 전년동월대비 공공은 329억이 감소하고, 민간은 1,334억이 감소하였음.
- 10월 수주액으로는 건축공정과 민간발주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비율로는 고용 및 기타 사업과의 연계성이 큰 공공발주 및 토목공정이 감소하였음.

3) 수출입 통계

(1) 전국 통계

(단위:백만 달러,%)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계
수출	2019	금액	46,169	39,482	47,003	48,781	45,704	44,008	46,078	44,020	44,629	46,649	44,041	45,668	542,233
		증감률	△6.2	△11.3	△8.4	△2.1	△9.8	△13.8	△11.1	△14.0	△11.9	△15.0	△14.5	△5.3	△10.4
	2020	금액	43,103	40,912	46,167	36,270	34,855	39,214	42,785	39,469	47,820	44,819	45,752	51,332	512,498
		증감률	△6.6	3.6	△1.8	△25.6	△23.7	△10.9	△7.1	△10.3	7.1	△3.9	3.9	12.4	△5.5
	2021	금액	48,010	44,693	53,783	51,222	50,755	54,803	55,434	53,211	55,829	55,619	60,444		583,791
		증감률	44,693	9.5	16.6	41.2	45.6	39.8	29.6	34.8	16.7	24.1	32.1		26.6
수입	2019	금액	53,783	36,651	41,992	45,047	43,620	40,105	43,762	42,457	38,741	41,397	40,729	43,687	503,343
		증감률	51,222	△12.2	△6.5	3.1	△1.9	△10.9	△2.6	△4.3	△5.6	△14.6	△13.0	△0.8	△6.0
	2020	금액	50,755	36,977	41,804	37,933	34,662	35,795	38,849	35,818	39,400	39,094	39,945	44,638	467,633
		증감률	54,803	0.9	△0.4	△15.8	△20.5	△10.7	△11.2	△15.6	1.7	△5.6	△1.9	2.2	△7.1
	2021	금액	44,259	42,191	49,651	50,788	47,811	50,352	53,662	51,565	51,623	53,837	57,357		553,666
		증감률	3.6	14.1	18.8	33.9	37.9	40.7	38.1	44.0	31.0	37.7	43.6		30.9
합계	2019	금액	9.5	76,133	88,995	93,828	89,324	84,113	89,840	86,477	83,370	88,046	84,770	89,535	1,045,576
	2020	금액	16.6	77,889	87,971	74,263	69,547	75,009	81,634	75,287	87,220	83,913	85,697	95,970	980,161
	2021	금액	92,269	86,884	103,434	102,010	98,566	105,155	109,096	104,776	107,452	109,456	117,801		1,136,899
무역수지	2019	금액	45.6	2,830	5,011	3,734	2,084	3,904	2,316	1,563	5,888	5,252	3,312	1,981	38,890
	2020	금액	39.8	3,935	4,363	-1,662	193	3,419	3,936	3,651	8,420	5,725	5,807	6,694	44,865
	2021	금액	3,751	2,503	4,132	434	2,944	4,451	1,772	1,646	4,205	1,782	3,807		30,125

*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수치이며 9월 현황은 잠정치임(관세청 무역통계 현황)

- 11월 수출입 집계(추정치) 결과, 전년 동월대비 수출은 32.1%(146.9억달러) 증가한 604억달러, 수입은 43.6%(174.1억달러) 증가한 574억 달러로, 무역흑자 30억달러를

기록하며 19개월 연속 흑자임.

- 10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주요 수출품목 현황 중 반도체(28.1%)·석유제품(141.0%)·선박(4.7%)·가전제품(15.6%) 등 증가, 승용차(△5.1%), 무선통신기기(△8.3%)·자동차부품(△1.1%)·액정디바이스(△15.6%) 등 감소. 또한 국가별 현황은 중국(25.0%), 미국(23.0%), 유럽연합(19.5%), 베트남(9.1%), 일본(35.2%), 중동(16.1%) 등 증가.
- 10월 기준, 전년 동월대비 주요 수입품목 현황중 원유(82.9%)·기계류(4.3%)·의류(20.8%)는 증가, 승용차(△20.7%)·자동차 부품(△7.8%)은 감소. 소비재는 11.3% 증가, 원자재는 70.7% 증가, 자본재는 15.5% 증가함. 국가별 현황은 중국(24.5%), 중동(93.4%), 미국(37.3%), 유럽연합(16.5%), 일본(17.6%), 호주(66.5%), 베트남(11.2%) 등 증가.
- 이미,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부터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불황이 진행 중이었고,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심화되었음. 2020년 11월을 기점으로 코로나 이전의 무역수지를 상회하는 등 회복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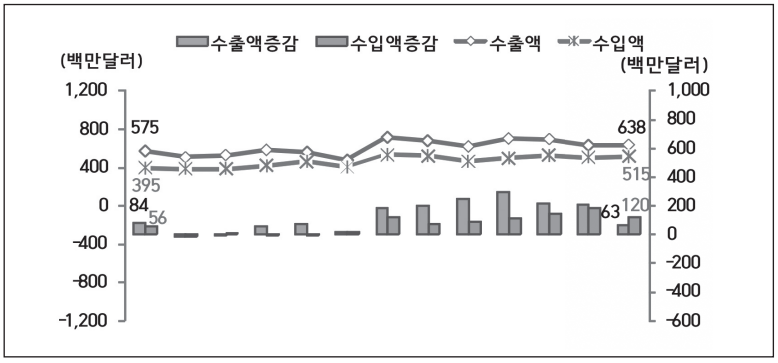
(2) 전북 통계

(단위:백만달러)

항 목	2019		2020												
	11	12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합계
수 출	531	527	489	465	538	479	371	406	482	421	575	508	528	584	5,845
전년동월대비	-98	-41	-105	-31	-31	-119	-209	-144	-110	-70	+85	+11	-4	+57	-671
수 입	384	423	469	390	411	448	372	386	385	322	395	383	388	419	4,768
전년동월대비	-94	-17	-5	+29	-5	-52	-62	-44	-72	-44	+56	-20	+4	-4	-219
합 계	915	950	958	855	949	927	743	792	867	743	970	891	916	1,003	10,613
전년동월대비	-192	-58	-110	-2	-36	-171	-271	-188	-182	-114	+141	-9	+1	+53	-890
무역수지	+147	+104	+20	+75	+127	+31	-1	+20	+97	+99	+180	+125	+140	+165	1,077
전년동월대비	-4	-24	-100	-60	-26	-67	-147	-100	-38	-26	+29	+31	-7	+61	-451

항 목	2021									
	1	2	3	4	5	6	7	8	9	누계
수 출	557	480	719	677	621	704	696	632	638	5,724
전년동월대비	+69	+15	+181	+198	+251	+297	+214	+211	+63	+1,499
수 입	461	404	530	521	463	496	527	507	515	4,424
전년동월대비	-9	+14	+119	+73	+91	+109	+142	+185	+120	+844
합 계	1,018	884	1,249	1,198	1,084	1,200	1,223	1,139	1,153	+10,148
전년동월대비	+60	+29	+300	+271	+342	+408	+356	+396	+183	+2,345
무역수지	+60	+76	+189	+156	+158	+208	+169	+125	+123	+1,300
전년동월대비	+40	+1	+62	+125	+160	+188	+70	+26	-57	+645

〈수·출입액(전년 동기대비)〉



자료: 관세청 지역별 무역통계

- 전북 지역 수출입현황을 보면 2020년 9월부터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1년 3월부터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변수가 많으므로 안정적인 상태는 아님.
- 전북지역 역시 2018년 11,12월과 비교해 2019년 수출입현황통계가 현저하게 감소했음을 알 수 있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경제위기는 발생되었음.

5. 가계동향

1) 소비자심리지수(CCSI[8])

- 2021년 11월중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9.3으로 전월보다 2.7p 상승.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7.6으로 전월에 비해 0.8p 상승.

8) 소비자심리지수(CCSI): 한국은행이 소비자의 응답결과를 집계하여 작성하고 있는 17개 개별지수 중 소비자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데 유용한 현재생활형편,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등 6개의 주요 개별지수를 선택, 이를 합성하여 작성한 종합지수임. 장기평균치(2003년~2020년)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 의미임.

	202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북	107.1	100.9	87.5	80.6	87.4	88.5	91.4	95.8	85.5	93.1	99.1	90.1
전국	104.2	96.9	78.4	70.8	79.7	83.7	85.9	89.7	81.4	92.9	99.0	91.2

	202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북	94.4	95.8	98.4	98.6	104.7	108.6	105.1	103.0	105.1	106.7	109.3
전국	95.4	97.4	100.5	102.2	105.2	110.3	103.2	102.5	103.8	106.8	107.6

2) 소비자동향지수(CSI[9])

-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93→96), 생활형편전망(98→100), 소비지출전망(112→114), 현재경기판단(83→87), 향후경기전망(98→102)은 전월보다 상승, 가계수입전망(100→100)은 전월과 동일.
-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93→101), 가계저축전망(94→98), 임금수준전망(120→121)은 전월보다 상승, 금리수준전망(130→130), 가계부채전망(100→100)은 전월과 동일, 주택가격전망(122→117)은 전월보다 하락.

연		2020											2021										
월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주요지수	현재생활형편	93	85	79	80	86	87	89	86	87	91	85	87	87	86	88	91	92	91	90	91	93	96
	생활형편전망	98	88	86	90	92	92	95	90	93	96	91	94	95	96	97	101	102	98	99	100	98	100
	가계수입전망	99	90	86	91	90	92	95	88	94	94	90	93	95	94	94	97	100	100	99	100	100	100
	소비지출전망	105	99	92	96	93	98	100	90	96	101	96	100	99	103	101	107	108	109	108	109	112	114
	현재경기판단	72	48	40	45	52	57	64	49	62	78	57	60	62	73	74	86	94	83	76	77	83	87
	향후경기전망	85	70	66	78	77	76	83	72	84	93	82	86	92	96	96	99	110	97	91	98	98	102
여타지수	취업기회전망	89	72	66	75	71	73	80	68	77	87	77	79	83	86	89	92	105	91	89	89	93	101
	금리수준전망	93	77	74	83	79	88	88	85	90	94	93	98	102	111	108	110	122	121	121	128	130	130
	가계저축전망	95	91	87	89	91	91	94	90	94	95	93	93	93	93	94	96	98	98	98	97	94	98
	가계부채전망	98	100	99	100	98	102	97	101	98	98	100	99	100	101	100	97	99	99	100	102	100	100
	주택가격전망	102	104	92	93	105	112	112	108	112	118	125	124	123	122	118	123	125	125	127	127	122	117
	임금수준전망	117	108	103	106	106	112	113	106	110	110	111	112	111	113	114	116	118	119	120	119	120	121

9) 소비자동향(태도)지수(CSI): 장래의 소비지출계획이나 경기전망에 대한 소비자들의 설문조사결과를 지수로 환산해 나타낸 지표. 경제상황과 생활형편, 가계수입, 소비지출, 고용, 물가 등에 대한 소비자의 응답을 가중평균해 작성한 이 지수는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경기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로서 경기동향 파악 및 예측에 유용한 정보로 사용됨. 지수의 값은 0~200사이에서 기준치인 100보다 낮으면 향후 경제상황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는 뜻이며, 100보다 크면 그 반대임.

6. 현황 및 대안

1) 보고서 요약

- 전국적으로, 고용현황은 2월 최저점을 찍은 이후 3월부터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음. 10월 고용현황은 전년동월대비 652천 명이 증가함. 이는 60세 이상의 노인취업자(+352천명)와 29세 이하의 청년취업자(+180천 명), 50대(+124천 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402천 명)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282천 명)의 취업자 증가, 상용(+615천 명), 임시(+219천 명) 노동자 증가로 인한 결과임,
- 전북지역의 경우는 전년동월 대비 16천 명이 증가함. 29세 이하(+16천 명)와 60세 이상(+17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30대(-18천 명)는 크게 감소했음. 도소매음식숙박업(+28천 명)이 크게 증가했으며, 농림어업(-14천 명)은 감소했음,
- 전북지역은 전국대비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높으며 임금노동자 중 임시·일용노동자 비중이 높음.
- 수치로 보면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으나, 농도로서의 특징(농업 종사자의 비중이 높음)과 산업의 후진성과 열악한 고용현실(중소영세 및 자영업 취업자 비율 높음), 통계의 이면(경제활동참가율의 허수와 낮은 실업률의 함정),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해 감춰진 현상일 뿐, 위기의 질은 훨씬 심각함.
- 전북지역의 고용현황은 전국추세에 비해 훨씬 심각함.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과 자영업 취업자의 증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자영업자와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가 증가한다는 점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현황에서 보듯이 10월 기준 36시간 미만 노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개천절과 한글날 대체유무의 무급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열악한 노동현실을 나타남.

- 11월 기업경기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상황 및 이후의 전망 모두 대체적으로 부정적 답변이 많음. 코로나 거리두기의 완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나, 원자재 가격상승과 코로나 환자의 급증이 쟁점임.
- 10월 건설수주현황에서 보았을 때, 건설수주액은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음. 소

비자 동향 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이 10월과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점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 수출입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전년대비 무역량이 감소하는 등 경제위기의 전조현상이 시작되었음. 2020년 4분기부터 수치상으로 회복되는 추세이기는 하나, 전북지역 수출규모는 2021년 9월 기준 전국규모의 1.07%에 불과한 미미한 수준임.
- 원자재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전년 동월 대비 8월 79.1%, 9월 61.5%, 10월에도 70.7%가 증가했음. 원유(82.9%)·가스(136.7%)·석유제품(266.5%)·석탄(89.1%)·의약품(48.8%)등이 증가했음.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것임.

- 1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이후의 전망이 호전되었음. 거리두기 완화로 인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로 보임. 11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 대비 4.2% 각각 상승하였음.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8%, 전년동월대비 5.9% 각각 상승하였음. 품목성질별로 보면 상품은 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6.0% 각각 상승하였으며, 서비스는 전월대비 0.0% 보합, 전년동월대비 2.5% 상승함.

2) 이후의 대안

- 현 시기의 일자리 정책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하나는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정책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위기국면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는 복지정책임.
-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고용정책의 근원적인 대안은 전기, 가스, 교통, 수도, 식량, 에너지 등의 필수산업과 돌봄, 교육, 의료, 노후, 주거, 생태 등의 필수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고용정책은 일자리에 사람이 부품처럼 채워지고 교체되는 것이 아닌, 일대기를 보육, 교육, 연금, 사회복지정책등과 연관 속에서 기획되어야 함. 직업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이 보장되는 것이라고 할 것임.
- 하지만, 문재인정부의 고용정책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다르지 않음. 단기처방과 일자리수치에만 연연한 목표와 효력이 상실된 단기, 비정규직 일자리정책임.

- 경제시스템에서 중요한 점은 내수시장의 강화임. 2019년기준 GDP대비 무역의존도

는 63.51%로 2018년(66.08%)에 비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G20국가 중 독일(70.82%) 다음으로 높음. (미국과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각각 19.34%와 28.08%임) 2020년 GDP(1,586,786백만달러) 대비 무역(수출입 함계 980,161백만달러) 의존도는 61.77%임. 무역의존도가 낮아진 것은 내수시장 확대보다는 무역량(특히, 수출)의 감소에서 비롯되었음. 무역의존도가 높을 경우 세계경제의'외풍'에 취약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크게 노출됨, 그러므로, 필수 원자재의 자급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와 국제에너지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가격의 상승에서도 중요성이 드러남.

- 전북지역의 성장의 동력을 외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정책은 더 이상 전망이 없다고 보임. 대기업 또는 외국기업 유치에 집착하는 것은 GM과 현대중공업 사례에서 보듯이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산업은 지역에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각종 기업상담센터 유치 사례 참조). 자본은 이윤이 없다고 생각되면 철수함. 또한, 건설토목사업 역시 생태와 공동체를 파괴시킬 뿐, 부를 자본과 부유층에게 집중시키고,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없음. 그러므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안과 성장의 기제를 내부에서부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산업정책방향은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SOC 기획사업과 사행성 사업 중심이 아닌) 농산어촌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이용한 먹거리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친환경·친노동 제조업과 지역강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 재편을 추진해야 함.
-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설비(불변자본) 비중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윤율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는 반면 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탓에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음. 설비 비중이 낮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확대되기 어렵고, 생산성이 아니라 착취율에 의존하게 되므로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하게 됨. 때문에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경제는 활력이 떨어지고, 경제성장률은 낮아지게 됨.
- 전북지역의 이후 전망은 (RGDP:지역총소득으로 상징되는) 경제성장을 위한 경쟁보다는 (RGNH:지역 총 행복지수로 상징되는)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지역으로의 방향전환이 요구됨.

- 이를 위해 가족(호혜와 평등)의식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사회 복지와 사회 공공성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함. 제대로 된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과

청장년층의 고용을 확대해야 함. 저임금노동자등 사회적 빈곤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강화, 농산어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소외와 차별을 극복해야 함,

- 정치개편기를 맞아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불평등을 극대화하는 이데올로기 공세가 수구언론을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으며, 유력 대선주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정책들을 경쟁하듯 발표하고 있음. 최저임금제, 건강보험료, 종부세, 차별금지법 등'백래시'(기득권세력의 반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함.
- 경제위기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심화시키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응이 요구됨. 이주노동자 및 노인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사회안전망의 약화 및 해체를 주장하는 포퓰리즘 선동에 대해 단호한 대처가 요구됨.

〈 참고 자료 〉

- 2021년 11월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시장동향 (고용노동부, 2021. 11. 26)
- 2021년 10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11. 30)
- 2021년 10월 전라북도 고용동향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11. 10)
- 2021년 10월 전북지역 소비자 물가동향(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 2021. 11. 2)
- 2021년 11월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11. 23)
- 2021년 11월 전북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11. 24)
-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전북본부, 2021. 11. 04)
- 2021년 10월 수출입현황(확정치)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11. 15)
- 2021년 11월 수출입현황 (관세청 통관기획과. 2021. 12. 01)
- 통계청 건설경기동향조사 (2021. 12. 02)
- 2021년 8-10월 전북지역 고용노동산업가계동향보고서

〈별첨〉

한,일, 전북 고용현황 비교 (2021년 3분기(7월-9월))[10]

(종사상 지위 기준/ 단위: 천명,%)

		전국		전북		일본			일본분류	비고
		수	%	수	%	수	%			
전체인구수		51,667	100.0	1,791	100.0.	125,959	100.0			21년 9월 기준
15세 이상 인구		45,106	87.3	1,556	86.8	110,180	87.4			전체인구수 대비
성별	남성	22,206	49.2	765	49.2	53,140	48.2			
	여성	22,900	50.8	791	50.8	57,030	51.8			
경제활동인구		28,451	63.1	986	63.4	68,950	62.6		노동력인구	15세 이상 대비
성별	남성	16,155	56.8	549	55.7	38,090	55.2			
	여성	12,296	43.2	437	44.3	30,860	44.8			
실업자		806	1.8	16	1.1	2,110	1.9			15세 이상 인구 대비
비경제활동인구		16,655	36.9	570	36.6	41,220	37.4			
취업자수		27,645	61.3	970	62.3	66,850	60.7			
성별	남성	15,682	70.6	539	70.5	36,870	69.4			
	여성	11,963	52.2	431	54.5	29,970	52.6			
종사상 지위	자영업자	5,547	20.1	261	26.9	5,350	8.0			취업자 수 대비
	무급가족종사자	1,059	3.8	76	7.8	1,480	2.2			
	임금노동자	21,037	100.0	634	100.0	59,690	100.0			
	상용	14,927	71.0	434	68.5	3,340	5.6	65.5	임원	임금노동자 대비
						35,750	59.9		정규직	
	임시	4,873	23.2	158	24.9	10,190	17.1	31.4	파트타임	
						4,380	7.3		아르바이트	
						1,400	2.3		파견[11]	
						2,780	4.7		계약[12]	
	일용	1,237	5.8	42	6.6	1,090	1.8	3.1	촉탁	
						760	1.3		기타[13]	

- 전체 인구수 대비 1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일본이 87.4%, 전국적으로 87.3%, 전북지역은 86.8%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은 전국과 전북에 비해 일본의 여성 비율이 1.0%p 더 높음.
- 경제활동인구는 전북(63.4%), 전국(63.1%), 일본(62.6%)순이었음. 전북의 경우 농업 및 자영업 관련 종사자 수가 많은 것이 이유로 보임. 성별에 따른 비율은 일본이 여성의 경제활동(44.8%)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자 비율은 전북(1.1%)이 제일 낮고, 전국(1.8%), 일본(1.9%) 순임. 일본의 경우, 완전실업자(191만명)와 불완전실업자(20만명)를 분리하여 통계를 내고 있음.

10) 일본 현황은 스즈키 아키라씨가 11월 17일 한일노동자연대 간담회에서 발제한 『일본노동운동의 현황』자료에서 발췌했으며 원자료는 일본 총무성 통계국에서 2021년 11월 9일 발표한 자료입니다.

11) 일본정부는 2016년 4월부터 연봉 130만엔(한화(100엔:1,041원)로 환산시 약 1,3533,000원) 이하 파트타임 고용시 1인당 최대 20만엔(사회보험료)을 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이로 인해, 기혼여성 중심으로 파트타임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무시간(전일제)과 근무형태(정규직) 관계 없이 고용 또는 전환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2) 일본의 기간제 계약기간은 5년이 경과할 시, 기업의 직고용의무가 발생합니다. 5년 계약 이후 고용해지로 인해 일본에서도 비정규직 대학교수등 투쟁이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습니다.

13) 기타의 경우 위의 근무형태에 속하지 않는 직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호출근로, 일당제 등

-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북(36.6%), 전국(36.9%), 일본(37.4%) 순임.
- 고용율 역시 전북(62.3%), 전국(61.3%), 일본(60.7%) 순임

- 성별 고용율은 남성은 전국(70.6%), 전북(70.5%), 일본(69.4%), 여성은 전북(54.5%), 일본(52.6%), 전국(52.2%)임.
- 자영업자 비율은 전북(26.9%), 전국(20.1%), 일본(8.0%)로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음. 자영업자에는 일본에는 아직 일반화되지 않은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들이 포함되어있음. 일본의 경우 한국의 특수고용직이 거의 대부분 임금노동자의 형태임.
-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은 전북(7.8%), 전국(3.8%), 일본(2.2%)로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음
- 상용노동자 비율은 전국(70.5%), 전북(68.5%), 일본(65.5%)로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고해야 할 점이 있음. 첫째, 한국의 경우 간접고용(특히, 용역)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에 포함되는 점, 둘째, 일본의 파트타임의 경우 한국의 파트타임과 형태가 다름.(실례로 한국의 경우에도 공공부문에서 파트타임 정규직들이 실험적으로 도임되고 있으며, 정규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함.
- 임시노동자 비율은 일본(31.4%), 전북(24.9%), 전국(23.2%)임. 위에서 서술했듯 파트타임노동자의 성격이 애매함.
- 일용노동자 비율은 전북(6.6%), 전국(5.8%), 일본(3.1%)임.